



제목	Rome's Wars in Parthia: Blood in the San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Vallentine Mitchell
발행일	2010. 1. 1.
저자	Rose Mary Sheldon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20
ISBN 또는 ISSN	978-0853039310

**내용 요약**

이 책은 크라수스 원정에서부터 파르티아의 몰락까지 로마와 파르티아의 군사적 대립에 대한 글이다. 저술의 목적은 적에 대해 적절한 지식도 없고 지역민의 저항을 과소평가했을 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로마는 파르티아와의 관계에서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였고, 플라비우스 왕조 시기 이후 대규모 전쟁을 도모하였다. 로마는 파르티아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파르티아와의 전쟁으로 인적, 물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 로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으로 침입하였는데, 이는 적에 대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로마가 우위를 차지하려는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였다. 그 사례로서 크라수스의 카라이(Carrhae) 전투 패배, 안토니우스의 적에 대한 지식 결여, 부실한 전쟁 계획과 그로 인한 병력 손실 등을 들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건전성을 위한 로마와 파르티아의 갈등은 양국에 유익했다. 또 전쟁보다는 외교적인 해결이 양국에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저자는 로마의 '군사 정보(Military Intelligence)'의 오류와 왜곡을 패배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사망 소문이 퍼지면서 시리아에서 발생한 카시우스 반란, 파르티아의 귀족과 장교들을 초대하고는 약탈을 이유로 처형한 카라칼라 행동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국정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저자는 로마가 정보전 비전문가인 군사령관들을 정보전에 활용한 '정보전의 실패'를 패배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